제43호 (2020. 09. 14)

대구여성가족 브리핑

DAEGU WOMEN & FAMILY FOUNDATION BRIEFING 발행인 정일선 발행처 대구여성가족재단 기획·편집 정희경·류영임 연구원



나다움氏의 2020년 대구살이 (with 코로나)

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양성평등주간이 운영되고 있다. 매년 7월 첫 주에 운영되던 양성평등주간은 올해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'여권통문의 날(9.1)'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,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변경되었다(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 중).

이번 호 브리핑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대구여성의 삶을 조명하고자 통계청, 보건복지부 등 국가승인을 받은 최신 통계를 활용하여 경제 안전 문화 복지 등 일상적인 영역을 성인지(性認知)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.

그 결과 대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5.6%인 고령사회로, 여성의 고령화율이 높았다. 여성 고령인구는 남성의 약 1.4배에 달하며 특히 여성 고령 1인가구는 남성보다 약 3.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출생성비는 109.2명이며, 조출생률은 전년 대비 0.5명 감소한 천명당 5.4명으로 출생아수는 꾸준히 감소추세이다.

경제활동을 살펴보면,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감소하는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는데,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4.0%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삶의 전반에 변화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지난해 동기간(2~5월)과 비교해 보았다. 그 결과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대구는 혼인 뿐만 아니라 이혼도 감소하였으며, 전년 동기간 감소폭은 7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. 또한 경제활동 전반에서 위축현상이 확인되었는데, 여성의 고용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3.4%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간 대비 6.9% 증가하였다. 이처럼 코로나19가 발생한 2~5월의 통계를 살펴보면 대구는 잠시 멈춘 도시처럼 보이는데, 이는 특히 고용, 돌봄, 가족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성에게 더 큰 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정희경 /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원

CONTENTS

인구 및 가구 / 가족 2p
보육 및 교육 / 사회참여 4p
건강 및 복지 / 안전 및 환경 6p
코로나19와 대구여성 8p

※ 본 브리핑은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2020년도에 수행된 연구보고서 「2020 통계로보는 대구여성의 삶」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대구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dwff.or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대구여성가족재단 DAEGU WOMEN & FAMILY FOUNDATION

01 인구 및 가구

인구 꾸준히 감소, 여성 고령인구 남성보다 많아

- 대구의 인구는 2,438,031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임. 여성인구 50.6%, 남성인구 49.4%로 여성이 조금 더 많음. 대구시 인구 성비는 2019년 97.8명에서 2045년 95.7명으로, 고령화의 진전으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 대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
- 연령별로는 유소년인구 294,899명, 생산가능인구 1,763,855명, 노년인구 379,277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72.3%임. 유소년인구는 남성이 많은 반면 고령인구는 여성이 더 많음

성별 인구

자료 : 행정안전부, 주민등록인구통계 (2019)



* 성비 : 여성 1백명당 남성의 수

(2019년 97.8명 → 2045년 95.7명)

연령별 인구

자료 : 행정안전부, 주민등록인구통계 (2019)

(단위 :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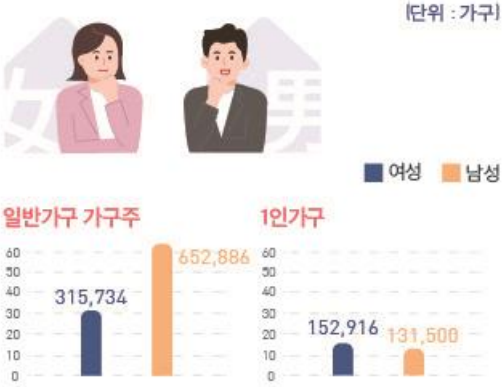
증가하는 여성 고령자 1인가구, 남성보다 약 3.1배 많아

- 대구의 여성 가구주 가구는 315,734가구(32.6%)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 2019년 기준 전체 3가구 중 1가구는 여성 가구주 가구임
- 최근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, 2015년 25.8%(239,517가구)에서 2019년 29.4%(284,416가구)로 3.6%p 증가함. 2019년 기준 대구 1인가구는 284,416가구이며 여성 1인가구는 53.8%인 152,916가구로 남성 1인가구보다 많음. 여성 1인가구 중 청년가구는 38,389가구(25.1%)이며 고령자가구는 57,341가구(37.5%)로, 고령자가 약 1.5배 많음

일반 및 1인가구

자료 : 통계청, 인구총조사(2019)

(단위 : 가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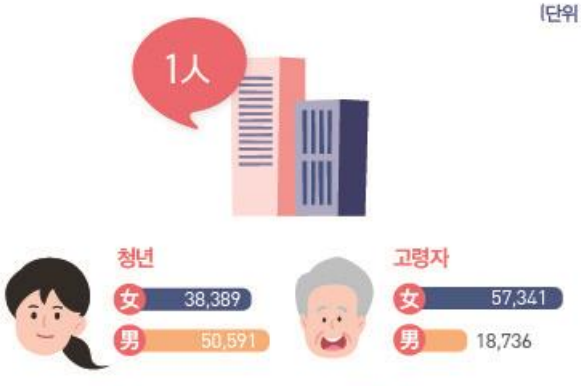


• 대구 1인가구 비율 : 2015년 25.8% → 2019년 29.4%

청년 및 고령자 1인가구

자료 : 통계청, 인구총조사(2019)

(단위 : 가구)



• 청년 : 20세 이상 39세 이하 • 고령자 : 65세 이상

02 가족

조혼인율 4.1건, 혼인율 꾸준히 감소

- 대구 여성의 혼인율 천명당 9.1건으로 남성(9.4건)보다 낮으며 전국 여성(10.6건)보다 낮음.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.4세, 여성 30.6세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, 평균 부부의 연령차 2.8세임
- 대구 여성과 남성의 이혼율 천명당 4.4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여성(4.9건)보다 낮음. 평균 이혼연령은 여성 45.9세로 전년대비 0.7세 높음. 평균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혼연령도 높아지고 있음

혼인 및 이혼율

자료 : 통계청, 인구동향조사(2019)

(단위 : 천명당)









평균 혼인 및 이혼연령

자료 : 통계청, 인구동향조사(2019)

(단위 : 세)





출생아수 감소, 부성 보호 수급자 증가추세

- 2019년 기준 대구 출생아수 13,233명, 조출생률 천명당 5.4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임. 여아 6,327명, 남아 6,906명으로 출생성비 109.2명임
- 모·부성 보호 수급자 가운데 육아휴직 수급 여성 2,438명, 남성 365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.5%, 28.5% 증가하였으며, 육아기근로단축 초회 수급 여성 127명, 남성 23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56.8%, 64.3% 증가함. 전반적으로 모성 보호 수급자의 비율이 부성보다 높은 가운데 부성 보호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

출생아수 및 출생성비

자료 : 통계청, 인구동향조사(2019)



* 출생성비 : 여아 1백명당 남아의 수

모·부성 보호 초회수급자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(2019)

(단위 : 명)





03 보육 및 교육

영유아 인구 감소, 보육료·양육수당 지급 감소

- 대구의 0~5세 영유아 인구 124,359명으로 대구 인구의 5.1%이며 여아 50,113명(48.7%), 남아 52,738명(51.3%)으로 남아가 더 많음. 영유아 성비 2009년 108.8명에서 10년 뒤인 2019년 105.2명으로, 여아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
- 보육료 지급인원 여아 26,182명(48.3%)으로 남아보다 적으며, 전년 대비 4.0% 감소함. 양육수당은 여아 14,493명(48.6%)으로 전년 대비 13.0% 감소하였으며 남아감소율(11.1%)보다 큼

영유아 인구

자료 : 행정안전부, 주민등록인구통계(2019)



* 성비 : 여아 1백명당 남아의 수

2009년 108.8명 → 2019년 105.2명

보육료 및 양육수당

자료 : 보건복지부, 보육통계연보(2019)

(단위 :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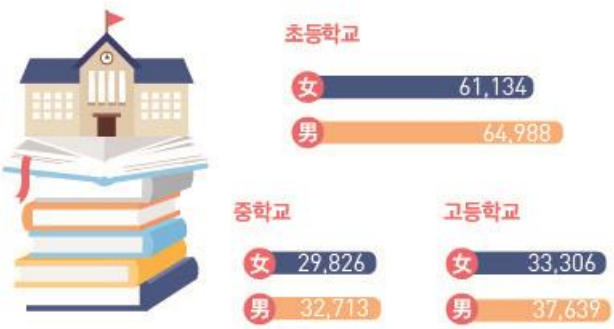
상급학교일수록 여학생 및 여성 교원 비율 감소

- 대구의 초등학생 126,122명, 중학생 62,539명, 고등학생 70,945명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, 중학생의 순임. 여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48.5%, 중학교 47.7%, 고등학교 46.9%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 비율이 감소함
- 대구의 여성교원은 초등학교 7,369명(81.8%), 중학교 3,970명(71.1%), 고등학교 3,241명(48.0%)임. 상급학교일수록 여성 교원은 감소하고 남성 교원 비율이 증가함

초·중·고등학교 학생 수

자료 : 한국교육개발원, 교육통계연보(201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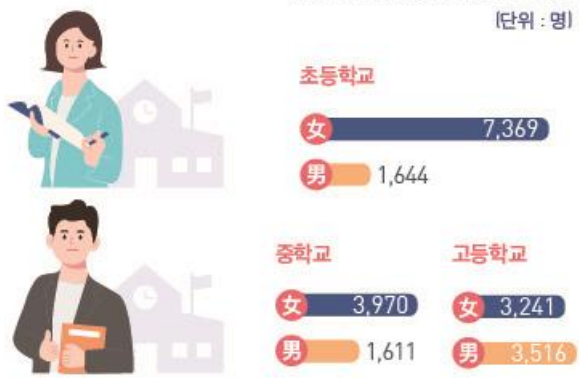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

초·중·고등학교 교원 수

자료 : 한국교육개발원, 교육통계연보(2019)

(단위 : 명)



04 사회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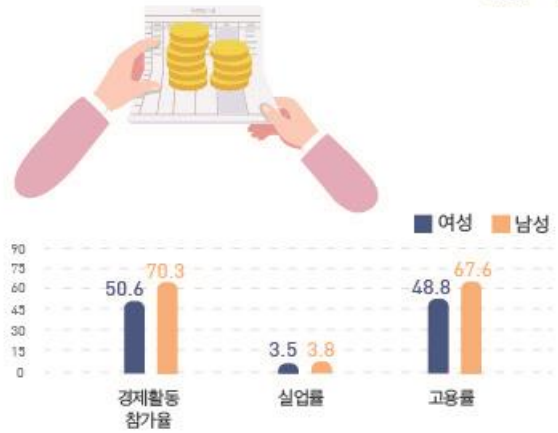
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, 임금격차 가장 높아 (7대광역시 중)

- 대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0.6%로 전년대비 1.7%p 감소한 반면 남성(70.3%)은 0.3%p 증가함. 고용률 역시 감소추세로 여성(48.8%)은 남성(67.6%)보다 18.8%p 낮음
-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줄어드는 반면 임금격차는 더 커지고 있음. 여성의 평균 임금 1,857천원으로 전년 대비 120천원 증가하였으나 남성보다 1,044천원 낮은 64.0%임. 대구의 임금격차는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

경제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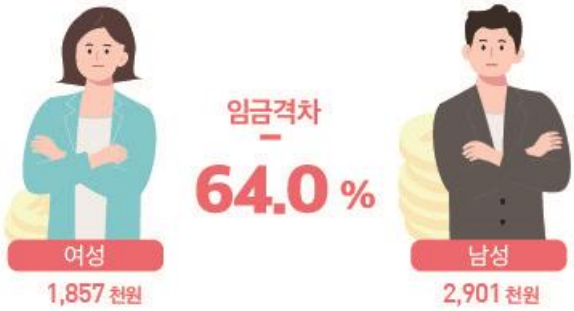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(2019)

(단위 : %)



성별 임금격차

자료 : 여성가족부,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(2018)



• 전국 평균 임금격차 : 62.1%

국회의원 여성의원 비율 10% 미만,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20% 초반

- 2020년도에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여성 의원은 1명(8.3%)으로, 여성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던 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(11.5%)보다 낮음
- 2018년도에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여성 당선자 비율은 광역의원 23.3%로 전국 평균(19.4%)보다 3.9%p 높고 기초의원 20.7%로 2.3%p 더 높음.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광역의원 여성 당선자는 3.3%p 증가한 반면 기초의원은 7.7%p 감소함

국회의원

자료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선거통계시스템(2020)



지방의회 의원

자료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선거통계시스템(2018)

(단위 : 명, %)



	광역의원	기초의원
女	7	24
男	23	92
여성비율	23.3	20.7

05 건강 및 복지

여성의 스트레스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, 남성보다 높아

-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4.6%로 전년 대비 1.8%p 증가하였고 남성보다 2.4%p 높음. 우울감 경험률은 여성 7.0%로 남성(4.0%)보다 3.0%p 높음.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남성보다 높음
- 자기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여성 47.0%, 남성 56.0%로 남성이 높음. 여성의 건강상태평가(좋다)는 전년(38.9%) 대비 8.1%p 증가하였으며 전국 평균(45.6%)보다 1.4%p 높음

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

자료 :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, 지역건강통계(201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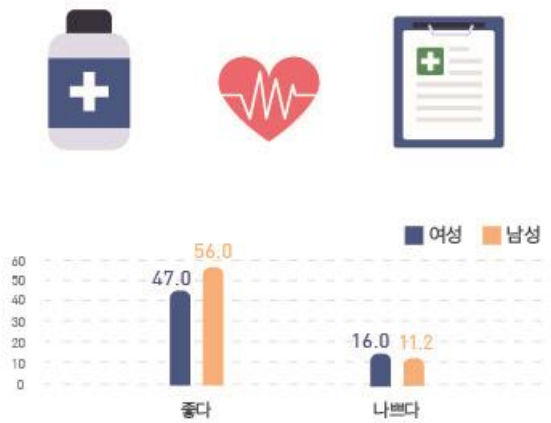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자기건강상태 평가

자료 : 통계청, 사회조사(2018)

(단위 : %)



여성의 공적연금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증가추세

- 대구의 공적연금 가입자 784,411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370,872명(47.3%), 남성 413,539명(52.7%)으로 남성이 더 많음. 여성은 전년(357,553명) 대비 3.7% 증가, 남성(1.4%)보다 증가율이 큼
- 대구 여성 기초생활 수급자 63,775명(56.7%), 남성 48,726명(43.3%)으로 여성이 더 많음. 여성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(59,298명) 대비 7.6% 증가하였는데, 이는 남성 증가율(6.1%)보다 1.5%p 높음

공적연금 가입자

자료 : 여성가족부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(2018)

(단위 : 명)



기초생활수급자

자료 : 보건복지부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(2019)

(단위 : 명)



06 안전 및 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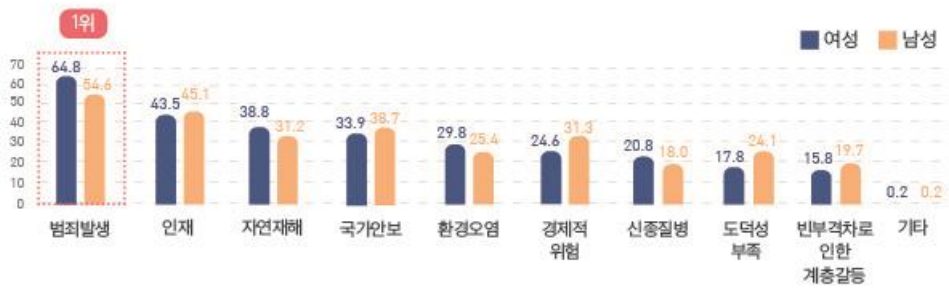
여성의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커

- 대구 시민은 사회에서 범죄발생(59.9%)을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재(44.3%), 국가안보(36.2%), 자연재해(35.1%), 경제적위험(27.85), 환경오염(27.7%) 등의 순임. 여성은 범죄발생(64.8%), 자연재해(38.8%), 환경오염(29.8%), 신종질병(20.8%)에 대한 불안이 남성보다 큼
- 여성의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정도는 전국(59.6%)보다 5.2%p 높음. 한편,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은 9.6%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, 이는 2016년(5.1%) 대비 4.5%p 증가함

사회 불안요인

출처: 통계청, 사회조사(20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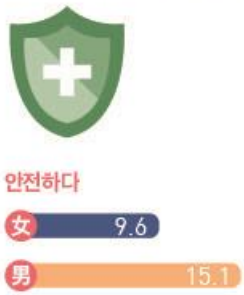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안전 인식

출처: 통계청, 사회 조사(2018)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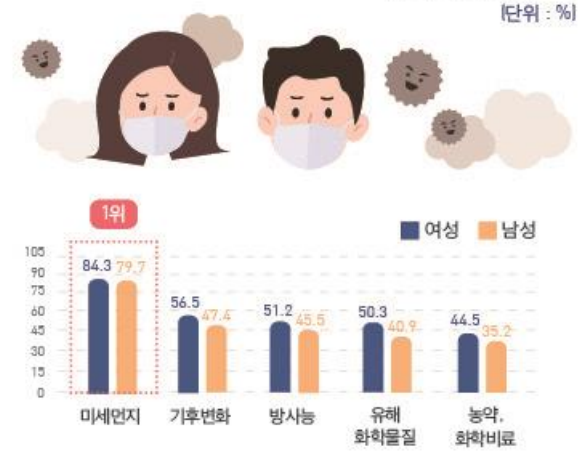
미세먼지에 대한 불안 가장 크고 대기가 나쁘다는 인식 증가

- 대구 시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82.5%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여성이 84.3%로 남성(79.7%) 대비 4.6%p 높음. 그 다음으로 기후변화(49.3%), 방사능(48.4%), 유해화학물질(45.7%), 농약, 화학비료(40.0%)의 순임. 여성은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불안인식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
- 현재 체감환경이 나쁘다는 소음 진동(43.4%), 대기(37.4%), 토양(24.9%), 수질 하천(24.7%), 녹지 환경(15.2%)의 순임.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에 대해 나쁘다는 여성의 인식은 36.4%로 전년(35.3%) 대비 1.1%p 증가하였으나 남성(38.4%)보다 2.0%p 낮음

환경문제에 대한 인식

출처: 통계청, 사회조사(2018)

(단위 : %)



체감환경

출처: 통계청, 사회조사(2018)

(단위 : %)



코로나19와 대구여성

코로나19 기간(2~5월) 동안 혼인과 이혼 모두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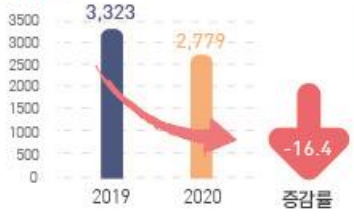
- 2020년 2월에서 5월 간 대구의 혼인건수는 2,779건으로 2019년 3,323건에 비해 16.4% 감소함. 대구의 혼인 감소율은 7대 광역시 중 가장 큼
- 이혼은 2020년 1,337건으로, 전년 동기간 대비 16.3% 감소함. 대구의 이혼 감소율은 전국 평균(8.1%)보다 약 2배 높으며,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큼

혼인 및 이혼

출처 : 통계청, 인구동향조사 (2019-2020p)

(단위 : 건, %)









코로나19 발생기간 여성의 경제활동 위축 남성보다 커

- 2020년 2월에서 5월 간 여성 고용률 45.2%로 전년 동기간 대비 3.4%p 감소함. 남성의 고용률도 1.7%p 감소하였으나, 여성의 감소가 약 2배 더 많음
- 여성 실업률은 2020년 4.0%로 전년 동기간 대비 0.1%p 소폭 감소하였으며 남성도 0.2%p 감소함.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 572천명으로 2019년 동기간 535천명에 비해 6.9% 증가하였으며 남성(6.4%)보다 증가율이 큼

경제활동

출처 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(2019-2020p)

(단위 : %, %p, 천명, %)

여성









남성







